

##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

### 조선인민군 제810군부대산하 어분사료공장과 천리마건설종합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 조선인민군 제810군부대산하 어분사료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일군들의 손을 일일이 잡아주시며 조선인민군 제810군부대산하 어분사료공장에 현대적인 설비들을 그쁘히 갖추어놓은 결과 생산량이 비약적으로 장성하였다는 보고를 받고 정말 기뻐했다고 하시면서 조선인민군 제810군부대는 당이 바라는것이라면 그 무엇이나 기어이 해내고야만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사료가 공장, 물고기선별장, 물고기랭동실, 사료보관창고 등 여러곳을 돌아보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공장에서 어분사료생산공정의 통합조종체계를 훌륭히 구축하고 가공, 포장, 운반공정의 흐름선화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한것을 비롯하여 과학적이며 합리적인 어분사료생산방법을 확립하기 위한 사업에서 많은 성과를 이룩하였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양어를 더욱 발전시켜 군인들과 인민들에게 사철 신선한 물고기를 공급해주려는 당의 의도를 관철하는데서 조선인민군 제810군부대산하 어분사료공장이 맡고있는 임무

가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며 설비관리를 잘할데 대한 문제, 어분사료생산용물고기보장대책을 더욱 철저히 세울데 대한 문제, 지금의 설비보다 훨씬 우월한 현대적인 팽화사료생산설비를 새로 갖추어놓을데 대한 문제 등 공장앞에 나서는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해당 부문의 일군들과 과학자, 기술자들이 조선인민군 제810군부대산하 어분사료공장을 돌아보고 현대적인 팽화사료생산설비를 만들어 양어장들에 보내줄데 대한 지시를 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조선인민군 제810군부대가 당의 의도에 맞게 양어혁명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퍼올리기 위한 투쟁에서 많은 성과를 이룩하고있는데 비결은 당정책을 심장으로 접수하고 당정책관철에서 무조건성의 정신을 발휘하고있기때문이라고 하시면서 앞으로도 나라의 양어를 발전시키는 길에서 선구자의 기치를 계속 높이 들고나가라고 힘과 용기를 안겨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 천리마건설종합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공장에서 지난 기간 질 좋은 건재품들을 생산하

여 중요대상건설장들에 보내주느라 수고들이 많았다고 하시면서 당에서 준 전투과제를 한치의 드림도 없이 기어이 관철한 공장일군들과 종업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은 조국강산에 일떠선 수많은 기념비적 창조물들과 더불어 길이 전해질것이라고 높이 평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드넓은 부지에 일떠선 공장의 전경을 바라보시며 자신께서 이곳에 찾아온 목적은 공장을 주체화, 현대화가 더욱 훌륭히 실현된 굴지의 종합적인 건재생산기지로 전면시키기 위해서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연혁소개실을 돌아보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철관지붕재직장, 경량강철구조직장, 수지건재직장, 제품전시장 등 여러곳을 돌아보시면서 생산정형과 제품의 질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공장에서 각이한 형태와 규격, 색깔을 가진 수지창과 늪창, 철관지붕재, 차열복합판, 수지판은 물론 여러가지 용도에 쓰이는 철울타리, 쇠그물울타리, 각종 블로크 등을 생산하고있는데 공장의 제품이 다종다양하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천리마

건재종합공장이 맡고있는 임무가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건재품의 생산량과 질을 높은 수준에서 보장할데 대한 문제, 금속건구와 경량화된 가구건재생산공정을 꾸리기 위한 사업에 큰 힘을 넣을데 대한 문제, 과학연구사업과 생산을 밀착시켜 건재품의 다양화, 다종화, 다색화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릴데 대한 문제 등 공장앞에 나서는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천리마건재종합공장을 인민생활향상과 국력강화, 조국산천을 더 아름답게 변모시키고 건축의 조형화, 예술화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하는 수많은 건재품들을 마음먹은대로 팡팡 생산해낼수 있는 보배공장으로 더 훌륭히 전면시키자는것이 당의 의도이라고 하시면서 제기되는 문제들은 자신께서 직접 맡아 모두 풀어주시겠다는 은정깊은 말씀을 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천리마건재종합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당의 웅대한 구상과 의도를 심장깊이 새겨안고 천리마시대의 기수들처럼 살며 투쟁함으로써 부강조국건설에 적극 이바지하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고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본사기자



# 위대한 수령님들의 통일유훈을 받드시어

민족단합과 통일을 위한 길에서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불후의 고전적로작 《위대한수령 김일성동지의 조국통일유훈을 철저히 관철하자》를 발표하신 때로부터 19년이 되어온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8월 86(1997)년 8월 4일에 발표하신 이 로작에서 조국통일위업에 쌓아올린 아버지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을 종합체계화하시고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조국통일3대원칙과 집민족대단결 10대강령, 고려민주권방공화국창립방안을 조국통일3대현장으로 정립하시어 온 겨레가 높이 들고나갈 불멸의 기치를 마련해주셨다.

위대한 장군님의 로작은 아버지수령님의 유훈대로 민족의 분열을 끝장내고 나라의 통일을 실현하는데서 나서는 문제들에 전면적이고 과학적인 해답을 준 불멸의 총서이다.

로작이 발표됨으로써 조국통일의 길에 쌓아올린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이 만대에 길이 빛나게 되었고 나라의 통일위업수행에서 견지하여야 할 지도적지침이 마련되었다.

조국통일은 더는 미룰수 없는 민족최대의 절박한 과제이며 위대한 수령님들의 필생의 념원이요 유훈이다.

위대한 김일성주석과 김정일장군님께서 민족분열의 고통을 누구보다 가슴아파하시고 우리 겨레에게 통일된 조국을 안겨주시기 위해 한평생 온갖 로고와 심혈을 다 바치시어 나라의 자주적통일과 평화번영을 위한 튼튼한 토대를 마련해주셨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나라가 분열된 첫날부터 조국통일을 민족지상의 과업으로 내세우시고 일관하게 하나의 조선로선, 통일로선을 견지하시였으며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령도하시어 조국통일운동을 전민족적인 운동으로 강화발전시키시었다. 해방직후 유엔의 간판밑에 남조선에서 《단선

단정》이 조작되던 엄혹한 시기에 력사적인 남북조선 정당, 사회단체대표자련석회의를 소집하시어 사대매국세력의 민족분열책동을 분쇄하기 위한 거족적인 투쟁을 벌리게 하신분도 수령님이시고 1970년대에 격계상태에 있던 북과 남 사이에 대화와 협상의 길을 열고 력사적인 7.4공동성명을 채택하게 하여 조국통일운동의 새 국면을 열어놓으신분도 아버지수령님이시다.

아버지수령님께서 조국통일의 근본원칙과 방도들을 밝힌 조국통일3대현장을 제시하시어 통일위업수행에서 견지하여야 할 지도적지침을 마련해주셨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아버지수령님의 조국통일유훈을 기어이 관철하실 불타는 일념을 안으시고 통일위업실현을 위하여 불면불휴의 낮과 밤을 이어나가시었다. 주제85(1996)년 11월 24일, 력사의 땅 판문점을 찾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 아버지수령님의 통일친필비 앞에서 오래도록 걸음을 멈추시고 수령님의 애국애족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기어이 조국을 통일하고 통일된 조국을 후대들에게 물려주자고 뜨겁게 말씀하시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불후의 고전적로작 《위대한수령 김일성동지의 조국통일유훈을 철저히 관철하자》에서 천명하신 조국통일3대현장의 정식화, 그것은 수령님의 조국통일사상로선을 한치의 드림도 없이 그대로 관철하시려는 위대한 장군님의 철의 신념과 의지의 선언이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불후의 고전적로작 《온 민족이 대단결하여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하자》를 발표하시어 아버지수령님의 민족대단결사상을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심화발전시킨 민족대단결5대 방침도 제시하시었다.

애국애족의 대용단과 통일 의지로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마련해주시고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통일의 문을 열어나가는 민족자주통일의 새 시대를 펼쳐주신 것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시대와 민족앞에 쌓아올리신 영원불멸 할 업적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국통일의 길에 쌓아올린 업적은 우리 민족에게 남기신 한없이 고귀한 유산이며 조국통일위업을 이룩할수 있는 튼튼한 밑천이다.

오늘 우리 민족의 자주통일 위업은 또 한분의 백두산위인 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모시어 즐기차게 전진하고 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위대한 수령님들의 조국통일사상과 로선, 불멸의 업적을 견

결히 옹호고수하시고 통일을 위한 투쟁으로 온 겨레를 힘있게 불려일으키고계신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서 하신 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에서 조선로동당의 조국통일로선은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제시하신 주체적통일로선이라고 밝혀주시면서 조국통일3대현장을 관철하여 조국통일의 길을 열어나가기 위한 투쟁방침을 제시하여주시었다. 또한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실현하는데서 현시기 절박하게 나서는 문제들에 과학적인 해답을 주시었다.

민족자주와 민족대단결, 평화보장과 련방제실현에 관한 조국통일방침은 조국통일3대현장을 관철하여 온 민족의 한결같은 지향에 맞게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가장 정당한 통일방략이며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우리 겨

레가 높이 들고나가야 할 기치이다.

우리 민족의 자주통일위업을 악랄하게 가로막아나서는 내외호전세력의 대결과 전쟁책동을 선군의 강력한 힘, 백두의 칼바람으로 짓부셔버리시며 조국통일위업의 최후승리로 온 겨레를 힘있게 불려일으켜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이시다.

민족의 태양이시며 조국통일의 구성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계시어 조국통일의 승리는 확정적이다.

우리 민족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숭고한 통일애국의 뜻과 유훈을 받드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령도따라 거족적인 통일대진군을 힘차게 다그쳐나감으로써 온 겨레가 소원하는 자주적이고 번영하는 통일강국을 반드시 안아오야할것이다.

본사기자 최광혁



## 오로지 조국통일을 위하여

주제 84(1995)년 7월이었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어느날 평양에 온 남조선의 박용길너사를 만나시었다. 크지 않은 키에 소복단장을 한 백발의 로인을 보기이 맞으신 그이께서는 이렇게 만나니 정말 반갑다 하고 하시며 고향의 몸으로 어려운 길을 오느라고 고생이 많았겠다고 그의 신상을 념려하시었다. 그 자리에서 박용길너사는 그이께 남쪽민중의 마음을 담아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을 조상한다고 정중히 인사를 올리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주름진 그의 손을 다시금 따뜻이 잡으

시고 나는 너사가 혼자 온 것이 아니라 문익환선생과 함께 왔으며 수령님께 올리는 남조선인민들의 인사를 안고온것으로 생각하고있다고 교시하시었다.

문익환목사를 회고도 하시고 통일을 소망하는 박용길너사의 마음도 헤아리신 그이께서는 남녘동포들이 보고싶다고, 나라의 통일을 위해 모든것을 다하겠다고, 수령님께서 바라시던 통일을 위해 김정일이 있다고 교시하시었다. 그이의 교시를 뇌리에 새기며 박용길너사는 장군님이시야말로 민족단합과 조국통일의 구성이사라는것을 다시금 굳게 확신하게 되었다.

## 새해의 첫 아침에

주제 102(2013)년 첫 아침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력사적인 신년사에서 조국통일과 민족번영에 대한 열망과 기대를 안고 새해를 맞이하고있는 남녘인민들과 해외동포들에게도 새해인사를 보내시었다. 조국통일을 더는 미룰수 없는 민족최대의 과제로 내세우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신년사에서 온 겨레가 새세기 민족공동의 통일대강이며 평화번영의 이정표인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철저히 리행하기 위한 투쟁을 적극 벌려나간다고 하시면서

북과 남, 해외의 전체 조선민중이 민족우선, 민족중시, 민족단합의 립장에서 서서 전민족적위업인 조국통일의 대의에 모든것을 복중시키고 지향시켜나가야 한다고 하시었다.

민족최대의 숙원인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받드시 실현하도록 해야 한다는 숭고한 조국애와 열화같은 민족애를 지니신 그이께서는 첫 신년사에서 남녘동포들에게 따뜻한 동포애의 인사를 보내시고 조국통일의 고귀한 지침을 밝히신것이였다.

본사기자

오늘 공화국의 수백만 청년들은 사회주의강국건설에서 청년의 슬기와 용맹을 남김없이 떨치며 나라와 인민을 위한 애국적소행을 높이 발휘하고있다.

세계적으로 많은 나라들에서 극단한 개인리기주의와 약육강식, 부패타락한 생활풍조로 청년들이 사상정신적으로, 도덕육체적으로 파멸되어가고있을 때 이 땅에서는 선군청년문화가 태어나고 선군청춘대학성적중이라는 새로운 시대가 생겨나는 자랑찬 현실이 펼쳐지고있다.

피땀은 청년의 손에 조국수호의 총검을 추켜든것도, 경제강국건설의 어렵고 힘든 곳에서 열혈의 몸과 열정으로 최첨단돌파전의 제1번수가 되고 금메달로 조국을 빛내이는 주인공들도 바로 청년들이다. 동지를 위해 자기 목숨을 바치고 혁명선배들의 아들딸, 영예군인의 길동무, 《처녀어머니》가 되어 일심단결의 화연이 생기와 활력을 더해주며 만사함을 감동시키는 미담들과 미풍을 창조하는 선구자들도 다름 아닌 청년들이다.

하기에 오늘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헌신분투하고있는 공화국의 청년들은 사회

## 세상에 들도 없는 청년강국

이 내세우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대해같은 사랑과 믿음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일찍이 조선혁명의 첫 발을 올리던 그때부터 청년중시사상을 내놓으시고 그것을 더욱 빛나게 구현하여주시 위대한 수령님들의 청년중시사상을 그대로 이어 청년문제해결에 깊은 관심을 돌리시고 그들이 민족에 대한 강한 자부심, 사회생활에 주인공으로서 참가하려면 투철한 의식, 고상한 정신과 건전한 도덕풍품을 지닌 아름답고 강인한 인간으로 성장하도록 보살피고계신다.

주제 101(2012)년 1월, 수백만 청년들에게 언제나 곧바로 당을 따라 앞으로라 는 크나큰 믿음과 고무의 친필을 보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선군장정을 이어가시는 속에서도 청년절을 뜻깊게 최도록 조치도 취해주시고 청년절경축대회 참가자들과 온 나라 청년들에게 축하문도 보내주시었다.

지난해 5월에는 제2차 전국청년미풍선구자대회를 열어 축하하고 우리 청년들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정치사상강국, 군사강국이라는 새로운 부름이 있다. 기나긴 인류력사에 청년강국이라는 말은 그 어느 나라에도 없었다. 자기 령도자에 대한 불타는 충정, 조국과 인민을 위한 헌신적부무정신, 혁명선배들과 동지들에 대한 고결한 리의심, 아름다운 도덕기풍은 조선청년들의 고유한 특질이다. 조선이야말로 끝없이 밝은 미래를 가진 청년의 나라, 세상에 들도 없는 청년강국이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청년중시의 령도에 의하여 세상에 들도 없는 청년강국의 위용을 떨치며 승승장구하는 전도양양한 나라가 바로 공화국이다.

오늘 미국을 비롯한 적대세력들이 공화국의 청년들의 사상을 변질시켜보려고 별의별 악랄하고 집요한 책동에 매달리고있지만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령도의 손길아래 이 땅의 청년대오는 보다 강위력한 강철의 대으로 더욱 장성강화되고 공화국은 청년의 젊음으로 약동하며 비약하고 있는것이다.

진영민

사상정신적품모와 미풍은 진주보석에도 비길수 없는 소중한것이라고 깃들임 내세워주시면서 대회참가자들과 함께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으시었다.

그이께서는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건설장도 여러차례 현지지도하시면서 청년들에게 크나큰 믿음과 고무도 안겨주시고 120여일간 낮과 밤이 따로없는 백열전을 벌려 세상을 놀래우는 영웅청년선화들 창조한 건설자들은 청년강국의 주인공들로 높이 내세워주시었다.

얼마전 외국의 한 인터넷홈페이지에는 이런 글이 올랐다.



## 자기 지방의 풍부한 원료에 의거하여 -정방산종합식료공장에서-

사리원시에는 황해북도 사람들이 《우리 공장》이라 정을 담아 부르는 식료공장이 있다. 갖가지 식료품들이 생산되어 나오는 정방산종합식료공장이다.

이 공장은 사랑이며 과자와 같은 당과류들과 국수나 빵과 같이 식생활에 많이 이용되는 식료품들을 생산하고 있다.

공장의 역사는 그리 오래지 않다.

1970년대 초반 해도 공장은 기름, 간장, 술을 비롯한 몇가지 식료품이나 생산하는 지방산업공장에 불과하였다. 그러던 것이 년대와 년대를 이어오면서 생산능력도 확장되고 생산되는 제품의 가지수도 늘어나게 되었다.

특히 공장이 자기의 번모를 일신한것은 2010년이였다고 한다.

그해 공장의 일꾼들과 근로자들은 창성군을 현지지도하시면서 지방공업혁명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켜올릴데 대한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강령적교시를 높이 받들고 공장을 자기 지방의 특성에 맞는 여러가지 식료품들을 생산하는 공장으로 만들기 위한 투쟁에 떨쳐나섰다.

공장을 개진현대화하기 위한 낮과 밤이 따로 없는 힘찬 투쟁이 벌어졌다. 낡고 뒤떨어진 설비들을 대담하게 들어내고 도대기판, 기업소들에서 제작한 식료가공설비들이 새로 갖추어졌다.

하여 공장은 불과 몇달

안되는 사이에 자기 지방의 원료원천에 의거한 생산체계가 확립된 종합적인 식료가공기지로 전변되게 되었다.

지금도 공장의 노동자들과 과학자들은 위대한 장군님을 공장에 모시었던 2011년 1월 21일을 잊지 못하고있다.

이날 한겨울의 추위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공장을 찾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현대적인 식료가공설비들이 즐비하게 늘어선 아담하고 정결한 작업장에서 쉬임없이 쏟아져나오는 각종 식료품들을 보시면서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몸소 과자의 맛까지 보아주시며 인민생활에 크게 이바지할수 있는 든든한 토대가 마련

된것을 두고 것처럼 기뻐하시던 위대한 장군님의 자애로운 영상을 언제나 가슴깊이 간직하고있는 공장의 노동자들은 더 많은 식료품들을 생산하기 위한 즐기찬 투쟁을 벌여왔다.

공장에서는 더 많은 원료기지를 조성하는 한편 지방의 원료원천을 적극 탐구동원하고 리용하기 위한 사업에 선차적인 관심을 돌리였다. 이와 함께 원료와 자재의 재질과 순도, 규격을 과학기술적 요구에 맞게 정확히 보장하며 기술규정과 표준조작법을 철저히 지켜 식료품의 질을 최상의 수준으로 보장하고있다.

오늘 공장은 생산되는 식료품들의 가지수가 다양할뿐아니라 맛이 좋고 질이 높은것으로 하여 인민들의 식생활향상에 크게 이바지하는 공장, 보배공장으로 사랑을 받고 있다.



가없는 하늘가에 흰구름 두들실 떠가고 수정같은 시내물 지졸대며 흐르는데 송아지떼 풀을 뜯는 파야란 들판에서 덩굴며 뛰노는 귀여운 강아지... 한수려어린이가 연주하는 쇼팽작곡 《강아지왈츠》를 들으며 심사성원들은 심사하는것을 잊고 스승의 미소를 입가에 피어올린채 그의 피아노연주에 심취되어버렸다.

6살밖에 안되는 어린이가 얘기단풍잎같은 손으로 평화롭고 목가적인 산촌의 정서를 어쩌면 그리도 방불하게, 그리도 흥만하면서도 우아하게 형상할수 있는지, 연주가 끝났어도 심사성원들은 한동안 랑만적인 산천의 예술세계에서 깨어날줄 몰랐다...

얼마전 뿔스카의 샤파르니아에서 진행된 제24차 쇼팽국제청소년연회 피아노연주승수 어린이의 피아노연주승수 심사성원들의 절찬을 받았다.

뿔스카, 로씨야, 중국,

도이칠란드, 영국, 프랑스, 에스빠냐 등 20개 나라에서 온 55명의 우수한 청소년학생들이 참가한 이번 경연은 나이별에 따라 3개 부류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경연 1부류에는 8살부터 10살까지의 어린이들이 참가하였다. 규정대로

뒤이어 쇼팽작곡 《강아지왈츠》와 자유곡으로 빠가니니주제에 의한 변주곡을 재치있게 연주하자 심사석에서 연방 탄성이 터져나왔다. 난도가 대단히 높아 한다 하는 성인 피아노연주자들도 힘들어하는 곡을 6살의 어린이가 뛰어난 기량으로 연주

하였다. 6살 난 경상유치원의 한수려어린이는 경연제외대상이었다. 난도 높은 외국음악들을 연주하려면 적어도 8살이상은 되어야 한다는것이 심사성원들의 견해였다.

그러나 예상은 뒤집어졌다. 한수려 어린이가 당돌하게 무대에 올라 피아노건반을 박력있게 두드리자 장내에는 바호의 《인벤손》의 선율이 울려 퍼졌다. 그가 건반을 두드릴 때마다 피아노에서는 은구슬, 금구슬이 막 흘러내리는듯싶었다.

은 한수려어린이. 나라에서는 한수려와 같은 평범한 로동자, 사무원의 아들딸들을 위해 청음시창교원, 전과교양원, 담임교양원들을 배치하여 배워주도록 하였다.

그 나날 한수려어린이는 피아노연주법을 배우기 시작하니 몇달후에 독주곡을 연주하는 수준에 이르렀고 1년후에는 국제경연무대에도 나설수 있는 피아노신동으로 자랐다.

하기에 그가 제24차 쇼팽국제청소년피아노경연에서 우수한 성적을 쟁취한 1부류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2등상과 쇼팽예술센터기금제정상을 수여받았다. 1등, 3등 수상자들의 나이가 10살이라고 볼 때 자기보다 나이가 2년, 3년 지어 4년 이상의 경쟁자들을 물리치고 결승무대에 나선것은 쇼팽국제청소년 피아노경연이 생겨 처음 있는 일이었다.

뛰어난 음악신동들을 키워내는 경상유치원에서 재능의 노래를 활짝 펼쳐

### 심사원들을 경탄시킨 피아노신동

## 잊지 못할 평양에서의 하루

이 지역에서 살면서 나는 세계의 여러곳을 다녀보았다. 하지만 얼마전 평양을 찾았을 때 받은 감흥은 아직도 사라지지 않고있다.

평양방문의 나날 나는 경치 좋기로 소문난 모란봉에 올랐다. 특색우거진 모란봉의 풍치를 감상하며 어

《이 집에서 꿀벌을 치는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집에서 꿀벌을 치기 시작하니 40년가량 되었지요. 주변에 수종이 좋은 꽃나무들이 많아서인지 꿀이 참 잘된답니다. 꿀벌들이 봄에는 살구꽃과 아카시아꽃에서, 여름에는 모감주나무, 분지나무에 피는 꽃들에서, 가을에는 국화꽃의 꽃들에서 꿀을 따들이고있지요. 꿀벌들이 얼마나 부지런히 꿀을 날라오는지 실새가 없답니다.》

할머니의 말을 들으니 생각이 깊었다. 깨끗한 공기와 자연환경을 떠나 생각할수 없는것이 꿀벌이다. 그런데 인간생활과 밀접히 련관되어있는 꿀벌이 생태환경의 파괴로 급격히 줄어들어 세계적인 문제거리로 되고있다. 내가 다녀온 남조선에서도 형편은 마찬가지였다. 대기오염 등으로 다른 나라들에서는 농촌에서도 꿀벌을 찾아보기 힘든데 고국에서는 도시중심부에 꿀벌들이 날아들고있다.

제날의 흥부골안에 이르니 꿀벌들이 《붕-붕-》소리내며 날아에는 모습이 참 이채로웠다. 눈여겨보니 가까운 곳의 어느 집 배란다로 꿀벌들이 날아들고 있었다. 꿀벌들을 따라 그 집을 찾으니 한 할머니(강명숙, 70살)가 반갑게 맞아 주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 집에서 꿀벌을 치기 시작하니 40년가량 되었지요. 주변에 수종이 좋은 꽃나무들이 많아서인지 꿀이 참 잘된답니다. 꿀벌들이 봄에는 살구꽃과 아카시아꽃에서, 여름에는 모감주나무, 분지나무에 피는 꽃들에서, 가을에는 국화꽃의 꽃들에서 꿀을 따들이고있지요. 꿀벌들이 얼마나 부지런히 꿀을 날라오는지 실새가 없답니다.》

할머니의 말을 들으니 생각이 깊었다. 깨끗한 공기와 자연환경을 떠나 생각할수 없는것이 꿀벌이다. 그런데 인간생활과 밀접히 련관되어있는 꿀벌이 생태환경의 파괴로 급격히 줄어들어 세계적인 문제거리로 되고있다. 내가 다녀온 남조선에서도 형편은 마찬가지였다. 대기오염 등으로 다른 나라들에서는 농촌에서도 꿀벌을 찾아보기 힘든데 고국에서는 도시중심부에 꿀벌들이 날아들고있다.

그러고보면 얼마전에 영국의 BBC방송이 《북조선에 자연적인 생태환경이 그대로 보존되어있어 철새들도 서식지를 정한다.》고 보도한것이 우연하지 않았다. 깨끗한 자연환경에 조국산천을 보다 살기 좋은 락원으로 꾸려갈 애국의 마음이 합쳐져 꿀벌이 늘어나는 이채로운 풍경을 펼쳤으리라.

이윽고 할머니의 집을 나서 평양8경으로 유명한 을밀대며 모란봉에서 제일 높은 최승대 그리고 칠성문, 청류벽 등을 돌아보며 걷느라니 풍치수려한 대동강반에 푸른 합각지붕을 펼친 유류관이 눈앞에 나타났다.

때마침 점심시간인지라 유류관 로리전문식당으로 들어갔다. 이곳에서는 평양랭면, 룡두지침을 비롯한 민족음식들과 자라료리, 칠갑삼어로리, 메추리리와 같은 명료리들을 봉사하고있었다.

특히 자라료리는 이곳 식당의 자랑이라고 한다. 정력과 원기를 돈구어주고 피를 맑게 해주는 자라료리가 고국에서 평범한 인민들을 위한 료도 된 이야기들을 들으며 감동을 금할수 없었다. 김정은명도자께서 인민들에게 더 많은 자라를 먹이시려고 한여름철의 무더위도 마다하지 않으

시고 얼마전에는 평양자라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고 한다. 인민을 하늘처럼 여기시는 절세위인의 품속에서 최상의 문명이 부러웠다.

북반은 인민들의 모습은 대동강반에서도 찾아볼수 있었다. 저녁어스름이 깃든 대동강반은 그야말로 황홀경을 이루었다.

불장식을 한 종합봉사선 《무지개》호가 두들실 떠있는 대동강에서 춤추는 분수가 화려한 물동을 펼치고있었다.

다른 나라들에서는 춤추는 분수를 공원같은데 설치하는것이 판테인네이렇게 대동강에 설치하니 더 황홀하고 보기에도 좋다는 나에게 안내하던 일꾼이 여기에는 인민들에게 더 좋고 문명한 생활을 안겨주시려는 절세위인들의 숭고한 인민사랑이 깃들어있다고 설명해주었다. 춤추는 분수 하나를 놓고서도 인민적인것, 대중적인것이 우선시되는 고국의 사회제도에 대한 찬탄이 절로 나왔다.

인간의 하루가 이렇게 깨끗하고 문명한 환경속에서 간다면 생이 얼마나 아름답고 풍만해질것인가. 그래서 더욱 잊을수 없는 평양에서의 하루였다.

재미동포 고진근

### 요령많은 명취품, 명장품

## 조선화의 우아함을 돌구어주는 색깔들

조선화구공장에서 생산하고있는 다종다양한 조선화색감들의 질이 좋아 호평을 받고있다. 재폴림 조선화, 선전화, 유화창작에 쓰이는 색깔들과 그림붓 등 미술기자재들을 생산하고있는 이곳 공장에서는 오랜 전통을 살리면서 첨단과학기술에 기초하여 조선화색감의 질을 부단히 높여나가고있다.

동양화의 일반적특징을 띠면서도 우리 겨레의 민족적감정과 정서를 풍부하게 담고 현실을 생동하게 그려내는 조선화, 세사사람들이 조선화를 볼 때마다 깊이 사색하게 되고 정갈하고 우아한 화풍을 느끼게 된다고 찬사를 아끼지 않고있는데는 이 공장에서 생산하는 조선화색감들을 떠나 생각할수 없다.

이곳에서 생산하는 16색, 24색, 30색의 조선화색감들은 색깔이 선명하고 우아할뿐아니라 고유한 민족적특성이 살아나 다른 나라것보다 훨씬 낫다는 평을 받고있다. 재폴림성에 있어서나 햇빛에 견디는 능력, 분산성이 좋은 이 공장의 조선화색감들을 보장받고있는 각 도 미술창작사들, 각급 미술교육기관들에서도 평판이 자자하다.

지난 시기 이 공장에서 만든 조선화색감들을 가지고 창작한 미술작품들 가운데 전국미술전람회 등에서 1등을 하고 국보적인 작품으로 등록된 작품들이 적지 않다. 이 나날 공장에서 생산한 조선화구(30색)와 붓제품들은 국내상품전시회들에서 여러차례 우수한 평가를 받고 최우수제품들에 수여하는 2월2일제품품질메달을 받았다.

김정수 조선화구공장 지배인은 《우리 선조들은



본사기자 류현철

본사기자









